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15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16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7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18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20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21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3 묵상하기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성전과 앞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막 11:12-14)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 없이 성전에 도착해서 물건을 흥정하듯 제물과 성전세를 준비하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지만 정작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린 나의 굳은 마음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메말라버린 나를 믿음의 삶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성전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무감각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물질주의, 편의주의 등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나는 무감각해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삶의 열매도, 복음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면 내 삶을 뒤엎을 개혁이 필요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로서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 무엇부터 뒤엎어야 할까요?
- 기도할 때 나는 안 될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구해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저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어떤 농부인가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포도원 농부 비유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우고 멀리 떠났다. 2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 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5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6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7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이 될 것이다.’ 8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9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모색함

10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11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12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 버렸습니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농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막고,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 했고, 급기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리면 그만인 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던 그 돌을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10절).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머릿돌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그 은혜로 나 역시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4 적용하기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게 살면 잃을 것이 많아서, 말씀이 불편해서, 기도하기 귀찮아서, 예배시간이 아까워서 나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버린 돌로 취급했듯이 나도 구원의 복음을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것,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하찮게 생각해도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일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겔세마네에서 기도하심

32 그들은 겔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5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36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잠든 제자들

37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38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39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0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41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42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3 묵상하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34절)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36절) 되기를 구하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지친 몸과 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기도를 마치신 후 괴로움을 떨쳐버리시고 “일어나라! 가자!”(42절)라고 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고단한 몸과 부족한 의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검결에 따라나선 제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채워집니다.

4 적용하기

진정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고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일 앞에서 나는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그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금 내려놓아야 할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 나의 기도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빌라도의 심문

1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3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4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줌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7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 주기를 바라느냐?” 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1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2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3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3 묵상하기

오늘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이상한 점 투성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꼭두새벽에 빌라도에게 가기까지 모든 것이 은밀하게, 마치 계획된 듯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선고합니다(14-15절). 결국 이 일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우유부단한 지도자 빌라도가 만들어 낸 합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이 모든 일을 온몸으로 감당하셨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투성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4 적용하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눈과 귀가 가려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폄하하고 욕합니다. 그럴 때면 부당한 현실에도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억울함에 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갈등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이 가셨고,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갈등하게 하는 주위 환경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 나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억울한 마음이 앞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숨을 거두심

45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46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47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48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51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52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53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55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3 묵상하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46절)라고 외치신 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류대신 짊어지신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51절). 1년에 1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를 가로막은 두터운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명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54절)라고 고백한 사람처럼, 나도 오늘 묵상을 통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 깊이 느끼고 있나요?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예수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수께서 장사되심

57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58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59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 천으로 쌌습니다. 60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61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62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63 말했습니다.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64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의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66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